

보도일시	2026. 10. 20.(화) 07:00	배포수량	총 8매
배포일시	2026. 10. 20.(화) 07:00	담당부서	학예연구실 연구기획과
주관부서	국립현대미술관 홍보고객과	담당자	이추영 과장 TEL 02-3701-9640 김경란 학예연구사 TEL 02-3701-9644

국립현대미술관 올라퍼 엘리아슨 커미션 신작 〈예측할 수 없는 궤도〉 공개

◇ 세계적 현대미술가 올라퍼 엘리아슨 커미션 신작 서울관 로비 최초 공개

- 2026년 "MMCA 지역동행" 사업 일환 첫 번째 커미션 프로젝트
- 자연, 도시, 전통과 동시대성이 공존하는 한국의 특별함을 담아낸 신작
- 26년도 11월 전북도립미술관, 27년도 2월 강릉시립미술관 순회로 순회 예정

국립현대미술관(MMCA, 관장 직무대리 윤태욱)은 서울관 로비에서 세계적인 현대 미술가 올라퍼 엘리아슨의 커미션 신작 〈예측할 수 없는 궤도〉를 최초 공개한다.

〈예측할 수 없는 궤도〉(2026)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로비처럼 자연광 조명이 어우러진 공용 공간을 위해 제작된 장소특정적 커미션 작품이다. 천장에 매달린 긴 막대의 한쪽 끝에는 내부에서 빛을 발하는 복합 다면체가, 반대편에는 선풍기가 매달려 균형을 이룬다. 불규칙한 선풍기의 작동이 구조물 전체를 매우 느리지만 예측할 수 없는 궤적으로 움직이게 하며, 유리 다면체 내부의 빛은 주변 공간에 다채로운 색의 다각형과 미묘한 그림자를 투사한다. 여기에 자연광이 더해지면서 기하학적 형태는 부드러운 색채와 선의 흐름으로 변화하며 공간 전체를 하나의 빛의 장으로 확장시키며, 날이 어두워지면서 강렬한 색상의 빛그림자로 공간을 채운다.

작품의 중심을 이루는 복합 다면체는 서로 쌍대 관계에 있는 두 다면체를 결합한

구조로, 상반된 형태가 하나의 질서를 이루는 기하학적 원리를 보여준다. 이러한 복합적인 기하학은 작가가 오랫동안 탐구해 온 조형 언어 중 하나로, 관람객은 움직이는 작품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는 빛과 공간을 몸으로 경험하게 된다.

한편, 작품의 단순한 작동 원리는 알렉산더 칼더의 ‘모빌’을 연상시키며, 내부에서 빛나는 유리 다면체는 아시아의 전통등을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궤도>는 전통과 유년기의 기억을 환기하면서도 빛과 움직임, 공간에 대한 동시대적 감각을 통해 관람객의 지각과 경험을 새롭게 확장한다.

이번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의 2026년 “MMCA 지역동행” 사업 가운데 「현대작가 커미션 신작 제작 및 순회」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추진되었다. 본 사업은 수도권 중심으로 향유되던 문화콘텐츠를 전국과 공유하여 국민의 문화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 생태계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다. 지역순회를 염두에 두고 작가 추천과 심의를 통해 작가를 선정하였고, 올라퍼 엘리아슨의 신작이 그 첫 번째 결과물이다. 미술관의 로비와 같은 공용 공간을 위해 구상된 작품으로 서울관 로비에서 구동 테스트를 거쳐 최초 공개됐으며, 2026년 11월부터 전북도립미술관, 2027년 2월부터 강릉시립미술관 서울의 로비로 순회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가의 새로운 커미션 작품을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공공 공간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MMCA 지역동행” 사업의 일환인 <예측할 수 없는 궤도>는 국립현대미술관 발전 후원위원회(MDC)의 후원을 바탕으로 구입·기증까지 추진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게 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발전 후원위원회(MDC)는 미술관의 발전 및 작품 수집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발족한 경영인 모임으로, 지난 15년간 문경원 &전준호, 히토 슈타이얼, 제니 홀저, 안리 살라, 와엘 샤키, 제임스 터렐 등 세계적인 작가의 주요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하며 미술관 소장품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에 기여해 왔다. MDC의 주도로 작품 구매·기증이 이루어진 이번 커미션 프로젝트에는 MDC 회원사인 HS효성(조현상 부회장)의 추가 후원이 더해졌다.

올라퍼 엘리아슨 작가는 이번 신작에 대해 “한국은 자연과 도시, 전통과 동시대성이 공존하는 특별한 장소이다. <예측할 수 없는 궤도>는 하나의 조각이라기보다

빛과 움직임,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이다. 작품은 시간과 빛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관람객 역시 작품을 바라보는 동시에 작품의 일부가 된다. 작품을 통해 관람객이 주변 공간을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고, 자신의 감각과 지각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소회를 전했다.

윤태욱 국립현대미술관장 직무대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미술관 공용 공간에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선사하고, 동시대 미술을 생산 단계부터 지역과 연결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며, “순회 수요 조사에서 높은 관심을 받은 올라퍼 엘리아슨의 신작이 전국의 관람객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일반 전화 문의: 02)3701-950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 연구기획과 김경란 학예연구사(02-3701-9644)에게 문의 바랍니다.

□ 다운로드(이미지)

- 웹하드 주소: <http://webhard.mmca.go.kr>
- 아이디: mmcapr0
- 암호: Mpr2025!
- 상단아이콘 [전용탐색기/웹탐색기/백업] 중 [웹탐색기] 클릭→ [Guest 폴더] → [2026 보도자료] → [국립현대미술관, 올라퍼 엘리아슨 커미션 신작 <예측할 수 없는 궤도> 공개]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국문) 2026년도 “MMCA 지역동행” 사업 – 현대작가 커미션 신작 제작 및 순회
: 올라퍼 엘리아슨 <예측할 수 없는 궤도>

(영문) 2026 “MMCA Together” Programme - Contemporary Artist's Commission on Tour
: Olafur Eliasson, *The Unpredictable Orbit*

○ 설치기간: 2026. 8. 14.(금) ~ 11. 5.(목)

○ 설치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로비

○ 참여작가: 올라퍼 엘리아슨

○ 작 품: 회전하는 모빌 1점

○ 주 최: 국립현대미술관

○ 후 원: 국립현대미술관 발전 후원위원회(MDC), HS효성(HS HYOSUNG),
조현상(H.S. Cho)

○ 관 람 료: 무료

○ 지역순회

- 1차: 전북도립미술관 1층 로비 (2026.11.10. ~ 2027.2.14. 예정)

- 2차: 강릉시립미술관 스텔라 로비 (2027.2.24. ~ 2027.5.16. 예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추후 국립현대미술관 누리집(mmca.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작가 소개

2. 작품 사진

3. 설치 전경

4. 후원 소개

[붙임] 1. 작가 소개



올라퍼 엘리아슨 작가 사진 (작가 제공, 사진: 루이스 요워트, 2024)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 b.1967)

올라퍼 엘리아슨은 빛, 색채, 물, 공기, 거울, 움직임과 같은 자연의 요소를 매개로 인간의 지각과 공간 경험을 탐구해 온 동시대 대표 작가이다. 그의 작업은 설치, 조각, 건축, 공공미술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예술과 과학, 철학, 건축, 환경을 연결한다. 작품은 하나의 완결된 오브제가 아니라 관람객의 움직임과 감각, 그리고 공간의 변화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경험으로 제안된다.

1995년 베를린에 '스튜디오 올라퍼 엘리아슨(Studio Olafur Eliasson)'을 설립한 이후 예술가, 건축가, 공학자, 연구자, 장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예술의 가능성을 확장해 왔다. 그는 2003년 런던 테이트 모던 터빈홀에 설치한 《The weather project》를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대규모 개인전과 장소특정적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Your rainbow panorama》(2011), 《Ice Watch》(2014-2018), 《Lifeworld》(2024) 등은 자연과 도시, 건축과 공공 공간을 연결하는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엘리아슨은 예술을 사회와 환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해 왔다. 2012년 태양광 조명 프로젝트 Little Sun을 공동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급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9년에는 유엔개발계획(UNDP) 재생에너지 및 기후행동 친선대사(Goodwill Ambassador)로 임명되었다.

그는 "작품은 하나의 답을 제시하기보다, 사람들이 자신과 주변 세계를 새롭게 경험하도록 초대하는 장(場)"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철학은 관람객이 작품을 바라보는 동시에 작품 또한 관람객의 존재를 드러내는 관계를 만들어내며, 빛과 움직임, 공간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볼 임] 2. 작품 사진



올라퍼 엘리아슨, <예측할 수 없는 궤도>, 2026, 스테인리스 스틸, 컬러 이펙트 필터 유리(분홍, 파랑, 초록, 주황, 마젠타, 시안, 노랑, 빨강), 팬(fan), 알루미늄, 스포트라이트, 210 x 500 x 150 cm (H x W x D), 사진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촬영: 정지현, 2026) © 2026 Olafur Eliasson

[볼 임] 3. 설치 전경



올라퍼 엘리아슨 <예측할 수 없는 궤도>(2026) 설치 전경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사진 정지현)



설치 전경 (야간)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사진 정지현)

[붙임] 4. 후원 소개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 <예측할 수 없는 궤도>(2026) 구입·기증은 국립현대미술관 발전 후원위원회(MDC)의 후원으로 추진됐다.

■ 국립현대미술관 발전 후원위원회(MDC)

국립현대미술관 발전 후원위원회(MDC)는 미술관의 발전과 작품 수집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발족한 경영인 모임이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윤석민 TV홀딩스 회장, 허용수 GS에너지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주축으로 2026년 기준 2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5년간 회원별 연간 기부를 통한 재정 지원과 작품 기증으로 미술관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MDC는 2012년 문경원·전준호의 <뉴스 프럼 노웨어 News from Nowhere>(2012) 기증을 시작으로 뉴미디어 아트 장르에 초점을 두고 미술관의 작품 수집을 지원해 오고 있다. 히토 슈타이얼의 <유동성 주식회사(Liquidity Inc.)>를 비롯해 에이야 리사 아틸라, 더그 에이트킨, 안리 살라, 에스에즐라 카메릭, 와엘 샤키 등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실천을 아우르는 작품을 구입·기증하며 미술관 소장품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에 기여해오고 있다.

아울러 MDC는 세계적인 작가들의 주요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하며 소장품 확충을 지원해 왔다. MMCA 커미션 프로젝트 《당신을 위하여: 제니 홀저》의 일환으로 서울과 과천에서 동시에 선보인 제니 홀저의 작품 중 과천관 야외 영구 설치 작품 <경구들에서 선정된 문구들 Selections from Truisms>(2019)과 한글 텍스트를 활용해 주목받은 <당신을 위하여>(2019)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과천관 40주년 기념 프로젝트 《빛의 상상들》에 소개된 제임스 터렐의 작품을 기증하는 등 국제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품에 추가하며 미술관 소장품 외연 확장을 위한 후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